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

캄캄한 밤에 별빛이 쏟아지고 작은 풀잎에도 어머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이 아름다운 밤에 욕심과 갈등으로 굳어진 끈 풀어내고 울퉁 불퉁한 자갈길 같은 마음 안에 당신의 은총과 기도로 흠뻑 적시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소서

먼 길 가는동안 세상의 모든 짐 내려 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절망으로 닫혔던 가슴과 가슴을 열어 희망의 빛 채우시어 위로해 주십시오.

성모 마리아님

는부신 햇살처럼 가슴 안으로 스며드는 어머님의 음성 산자락마다 쏟아 놓은 들꽃의 향기가 우리들의 영혼을 깨울 때 사랑때문에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 놓으신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말씀해 주십시오 "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" 당신의 순명과 눈물이 세상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당신의 인내와 사랑이 세상을 축복으로 덮었습니다 어머님의 희생과 믿음을 본 받아 칠흑 같은 절벽도 뛰어 넘는 용기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신앙의 신비를 받아들게 하소서

평화와 기쁨의 샘이신 어머니시여 특별히 사제들을 사랑하시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소낙비 같은 은총을 날마다 퍼부어 주소서 오 아름다우신 성모 마리아님 홀로 찬미 받으옵소서

양경숙 미쉘 올림